40개 대학 로스쿨 유치전 정원·대학 수 관심 집중

교육부 "로스쿨별 정원 줄이고 대학 수 늘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09년 개원 예정인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 및 설치 대학수, 대학별 정원에 대학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 40개 대학이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유치전에 나선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 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법은 따로 정원을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총 입학정원이 먼저 확정돼야 설치 대학 수와 각 대학별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총 입학정원과 관련,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교수단체·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설치 대학 수도 대학별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있고 각 대학별 준비 상태나 교육수준은 물론 지역 안배 등 정치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입학정원 결정 못지않은 복잡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총 입학정원은 로스쿨 설치 대학 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입학 정원의 규모가 현저히 적을 경우 균형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보다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법학교수회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입학정원을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전국체전 성공 기원합니다"

주 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빛고을 한마음 축제'에서 5천여명의 시민들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88회 광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차·인터넷 무료 등 파격 서비스

가마미 해수욕장 '세일' 나섰다

'주차와 인터넷 게임이 무료입니다. 20명의 주차 도우미가 여러분을 맞이하고, 조개와 물고기는 마음껏 잡아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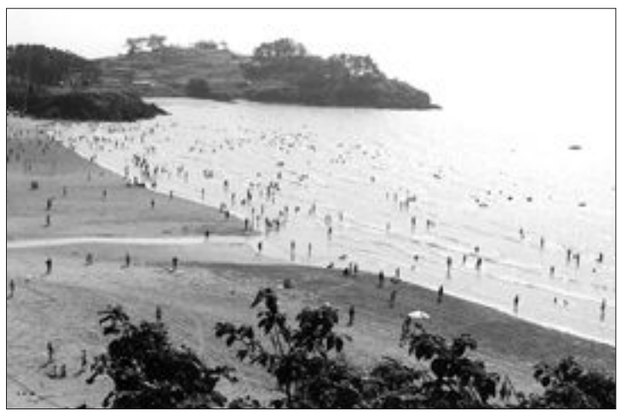
백화점 광고 문구가 아니다. 피서객을 유혹하기 위해 전남지역 한 해수욕장이 내건 각종 서비스다.

지난 6일 개장한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가마미(駕馬尾) 해수욕장이 파격적인 서비스로 '피서객 모시기'에 나섰다.

가마미 해수욕장 운영본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주차장(150면) 주차비를 단 1원도 받지 않는다. 그동안 소형 2천원·대형 5천원을 받았지만 다른 해수욕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무료 운영하며, 계마리 어촌계와 아르바이트 학생 20여 명이 주차를 돕는다.

해안가 백사장(길이 400m·폭 100m)엔 지난 3월 7t가량의 백합(白蛤)종패를 뿌려놓았다. 썰물 땐 피서객들이 조개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10회 해변 가요제'(8월4일) '바다 수영대회'(7월 중) '고기잡이 대회'(8월 중) 등 체험형 행사도 다양하다.



지난 6일 새 모습으로 개장한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 주차비와 인터넷 접속비 등을 무료화하는 등 다른 곳과 차별화를 꾀했다. 〈영광군청 제공〉

조개 잡을 수 있도록 백합 종패 7t 뿌려

모래찜질 전용 구간 마련 피서객 '유혹'

운영본부 사무실에선 피서객들이 언제든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 PC 두 대를 설치했다. 인터넷 이용료는 물론 공짜다. 이외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래찜질을 할 수 있도록 백사장 한쪽에 모래찜질 전용 구간인 '샌드베드'(Sand bed)도 마련했다.

가마미 해수욕장 임상우(45) 관광협의회장은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등도 개·보수해 쾌적한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4만 명의 피서객을 올 여름 유치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1천 명, 개장기간 동안 총 3만 명의 피서객들이 다녀갔다.

/영광=이종행·조익상기자 ischo@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논란

입주민들 "현실성 없다" 재개정 요구

광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현실성이 없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는 8일 "개정 관리규약은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입주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 입주자의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반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감사요구권 정족수 입주자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분기별 임시회의 등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신 ▲관리사무소 관리비 집행 매달 확인 ▲회계서류 보관 10년으로 연장 ▲5인 이상의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관리규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개월 동안 지역 총 720개 공동주택 단지 중 2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련단체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뒤 개정했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관리규약을 전국 최초로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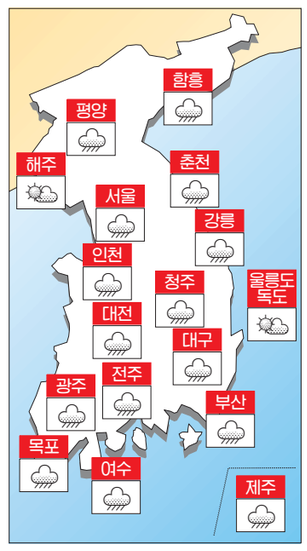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빗길 조심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

7월 9일 (음 5월 25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21~27℃
목 포	흐리고 비	20~24℃
여 수	흐리고 비	20~24℃
완 도	흐리고 비	20~24℃
구 례	흐리고 비	21~28℃
해 남	흐리고 비	21~25℃
장 흥	흐리고 비	20~25℃
고 흥	흐리고 비	20~24℃
순 천	흐리고 비	20~28℃
영 광	흐리고 비	21~25℃
진 도	흐리고 비	20~25℃
전 주	흐리고 비	22~28℃
남 원	흐리고 비	21~28℃
흑산도	흐리고 비	19~23℃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8:29 01:35 썰물 〈 21:36 14:04
여 수 밀물 〈 03:21 16:38 썰물 〈 09:48 22:42

▲해뜸 05:25 ▲해짐 19:50 ▲달뜸 00:26 ▲달짐 14: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 씨						
최저/최고	22/25	22/28	21/29	21/28	22/29	23/27

천둥·번개 동반 20~60㎜ 비

장맛비에 더위 주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9일 광주·전남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20~6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9일 오전부터 해안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내륙지역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말인 7일과 휴일인 8일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광주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8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9일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여 낮 최고기온이 8일보다 3~4도 정도 낮은 24~2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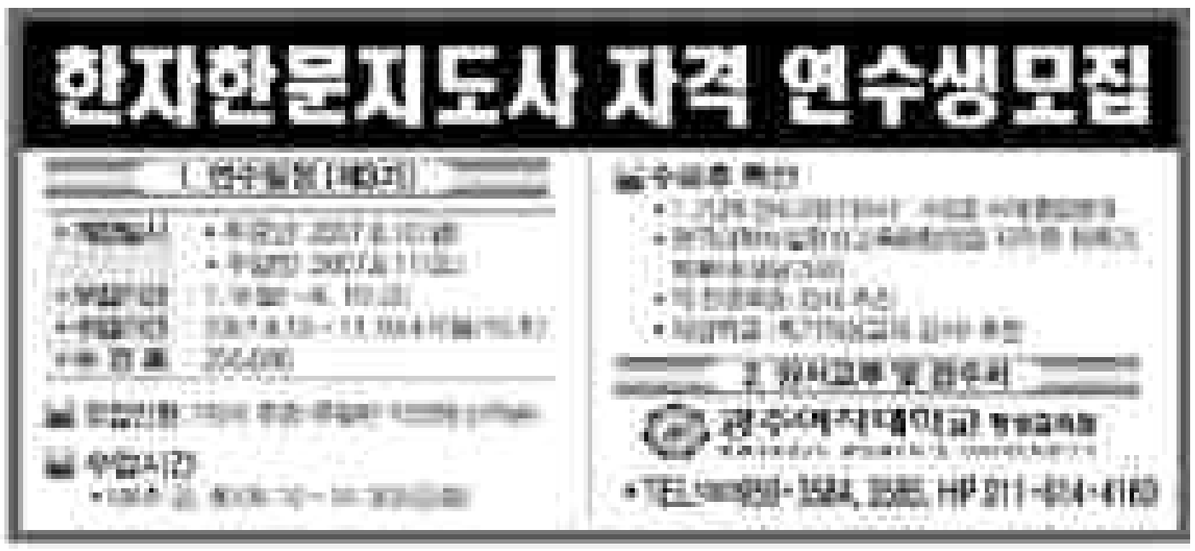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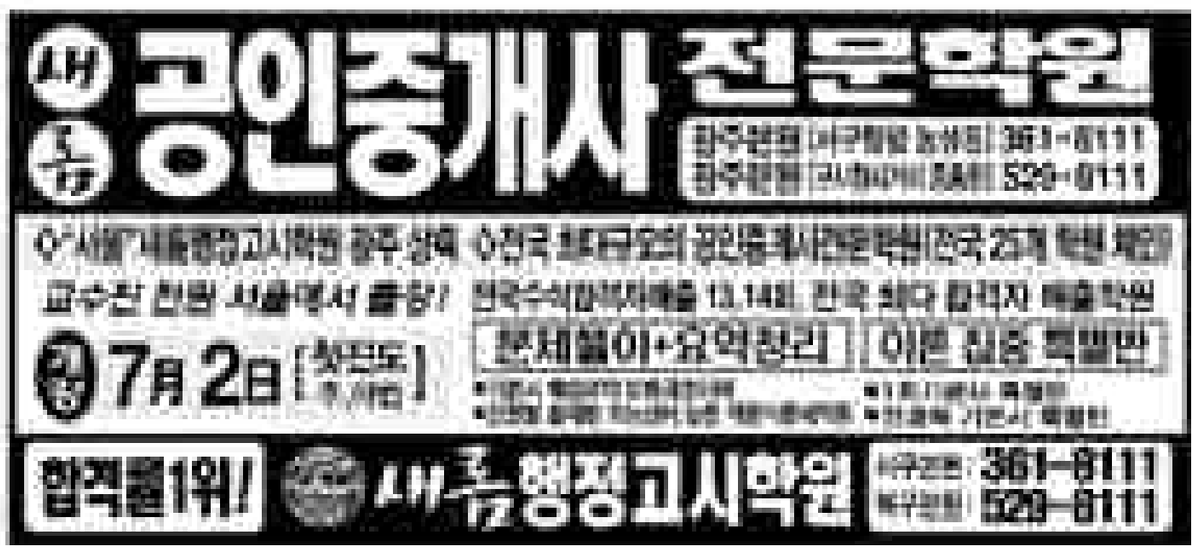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항의 점거 농성 시도

뉴코아 순천점 등 12곳 영업 중단

뉴코아와 홈에버 등 이랜드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의 점거·농성 시도로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12곳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했다.

8일 경찰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뉴코아 노조원과 민주노동당 송과구위원회 당원 등 200여명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 킴스클럽 강남점을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랜드 측과 경찰은 개장 이전부터 '노조의 불법 영업방해로 인해 출입을 통제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별적으로 고객들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노조원들의 매장 진입을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또 안양 평촌 NC백화점, 뉴코아 일산점, 야탑점, 인천점, 순천점, 울산점, 부천중동점 등도 사측의 매장 봉쇄 · 영업중단 조치로 정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